

인본사회연구소 사무처

어느덧 2023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올해 인본은 부산을 누비며 많은 분들과 만나고 배웠습니다. 부산민주시민 교육네트워크에서 지원받아 진행하였던 <인본고고아카데미>도 끝이 났고, 인문학 동아리 활동도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월 자갈치에서 회원들과 크루즈를 타고 부산 바다와 태종대의 위엄을 보았고 7월 장대 같은 비를 뚫고 해운대 해변열차를 타고 해운대~송정의 바다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부산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산을 가로지르며 역동적인 부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본은 올해 배, 열차, 버스를 타며 부산 일주를 했습니다. 인본의 인문학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활동을 시작했던 <부산걸쳐 워킹토킹>은 총 5번의 트래킹과 3번의 문화행사를 하며 부산을 배우고 교양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워킹토킹’을 진행함에 있어 함께 걷고 강의 해주신 박창희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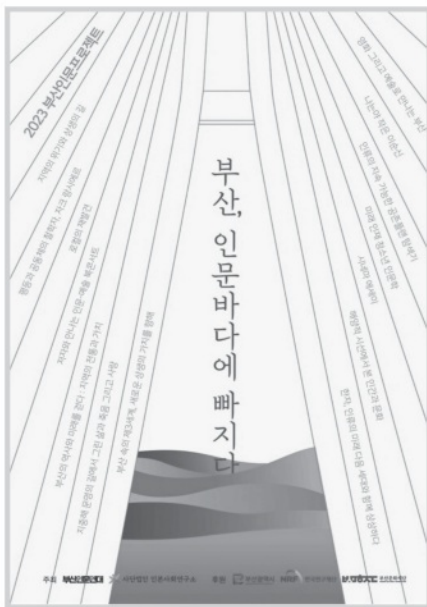
지난 9월 코로나의 여파로 진행하지 못했던 〈인본 하계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랜만에 회원님들과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사무처까지 함께 한산도를 다녀왔습니다. 부산 이순신학교 교장이신 남송우 이사장과 20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바다 전문가이며 외가가 한산도인 김영춘 이사의 친절함 안내와 꼼꼼한 준비로 회원들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열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모신 일타 강사 이순신전략연구소 이봉수 소장의 강의까지 보태어져 낮선 한산도를 한번 가고도 열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섬 자체가 군함이며 요새였던 한산도, 여름 막바지의 좋은 날 회원님들과 함께하여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

지난 3월부터 매월 세 번째 금요일에 진행되는 <금요인문학>도 자리를 잡아 가는 듯합니다. 7월은 북한에서 오신 주승현 교수의 생생한 탈북 이야기를 통해 통일의 염원을 다시 한 번 다졌고 8월에는 김종기 관장의 부산의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9월 역사전공자 박종성 메가시티포럼 사무처장의 형평운동과 조선시대 백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평등사상을 되새김하였습니다. 10월에는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여 부마, 그날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에는 문화공간 봄 류지석 대표님을 모셔서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류지석 대표는 프랑스 교육제도와 한국의 교육제도를 비교하면서 한국 교육의 미래를 진지하게 전하였습니다.







또 올해로 4회를 맞는 <부산인문학포럼>이 9월부터 시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이면 마무리됩니다. 인본에서는 금곡고등학교와 대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 청년 인문아카데미가 실시되었고 학생들의 반응은 열화와 같았습니다. 인본사회연구소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움직이며 배우고 찾아가서 가르치고 인문학적 소양을 익히며 인본사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인본연구소**